

18일부터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상' 구분창 특별전·호주 대표 작가 기획전 등 열려



구분창의 '독도 04-1'.

여름에 열리는 대규모 사진축제인 '2014 동강국제사진제'가 18일 동강사진박물관 등 강원 영월읍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동강국제사진제(위원장 김영수)는 다채로운 기획전, 특별전 등으로 사진전문가는 물론 애호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동강국제사진제가 해마다 선정하는 '동강사진상' 올해 수상자는 중견 사진가이자 사진 전시기획자 등으로 널리 알려진 구분창 작가다. 그는 이번 사진제 동안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수상기념전을 연다. 지난 15년간 작업해온 시리즈들 중 동양적 정서를 잘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백자' '풍경' '탈' 주제의 시리즈 작품은 물론 작품집·인쇄물 등을 선보인다. 사물을 해석하는 섬세한 시각이 돋보이는 그는 특히 이번 전시에서 백자 영상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기획전으로는 호주현대사진전이 마련됐다. 'Episodes: Australian Photography Now' (기획 나탈리 킹·박영미)라는 제목 아래 호주를 대표하는 사진가 12명이 참가한다. 작가 대부분이 호주 원주민으로 각자 자신만의 관점으로 호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채롭게 그려낸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세계 곳곳의 이주문화가 혼재된 호주의 삶을 깊숙이 반영할 작품들은 호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에 대한 사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젊은 사진가들의 독창적 시각과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야외전시인 '거리 설치전'은 '영월 시선'(기획 이재구)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동강사진박물관 주변에서 열리는 전시는 예술성과 기록성을 지닌 사진을 통해 영월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강응규·최현진·하상철이 참여한다. 또 뉴스 현장에서 진실성·정확성을 추구하는 보도사진 작업을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남영호·박종우·서영걸·신경훈·이창수가 참여하는 '보도사진가전', 강원 출신의 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강원도 사진가전', 다큐멘터리 사진가 최민식(1928~2013)의 작품 '인간(HUMAN)' 시리즈를 선보이는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전' 등도 마련됐다. 이밖에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동강 사진워크숍'과 유명 사진가들의 '사진 공개강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홈페이지(www.dgphotofestival.com)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9월21일까지.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